



바른교회아카데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른교회, 깨끗하고 투명하고 건강 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바른교회상을 연구하고 정립하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힘써 돕고자 합니다.

GOOD NEWS



1. 사무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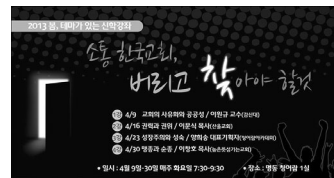
□□□ 지난 1월부터 바른교회아카데미 총무로 문형채 목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형채 목사는 한양대와 장신대에서 공부하였고, 인천제일교회 부목사, 세광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높은뜻연합선교회 센터 기획 및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2. 2013 봄, 테마가 있는 신학강좌

‘소통 한국교회, 버려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 바른교회아카데미 ‘2013 봄, 테마가 있는 신학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적인 덕목들을 왜곡함으로써 스스로 게토화될 뿐 아니라 대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금 사회와 건전하게 소통할 길을 찾고자 시도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4월 9일-3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30-9:30

□□□ 장소: 명동 청어람 1실



- 4월 9일 / 교회의 사유화와 공공성 _ 이원규 교수(감산대)
- 4월 16일 / 권력과 권위 _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 4월 23일 / 성장주의와 성숙 _ 양희송 대표(청어람아카데미)
- 4월 30일 / 맹종과 순종 _ 이창호 목사(높은뜻섬기는교회)

□□□ 등록: 홈페이지(www.goodchurch.re.kr)에서 등록하신 후 등록비 입금

□□□ 등록비: 35,000원(후원회원은 30,000원), 현장등록 시 한 강좌 당 10,000원

계좌: 신한은행 100-021-095184 바른교회아카데미

□□□ 문의: 02-777-1333, 010-7383-5479(조정호 목사)

3. 2013년 바른교회아카데미 지역세미나

□□□ 바른교회아카데미는 2013년에도 강원, 충북, 전주, 충남,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서울 등의 지역을 찾아가며 바른 교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Good Church! Good Christian!' 코너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Good Church! Good Christian!' 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찾아내고 소개하는 일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화☎ 02-777-1333)나 이메일(gcacademy@hanmail.net)을 통해 사무국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한국의 아나뱃티스트교회로 알려진 춘천에 위치한 예수촌교회 김태민 목사와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실습니다.

5. 회원교회로, 개인회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바른교회아카데미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지역교회는 회원교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회원교회(후원회원교회)에는 홈페이지를 연동하고, 정기적으로 회보를 보내드리며,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개인회원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회원교회와 개인회원은 바른교회아카데미 사역을 든든히 받쳐주는 힘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회나 성도님들, 목회자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국(☎ 02-777-1333, gcacademy@hanmail.net)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2' Good News

4' Contribution

목회를 잘하려면 경영학을 배워야 한다? 임성은

6'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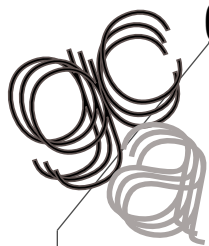
'빠름, 빠름, 빠름'의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임희국

8' Good Church Good Christian

예수촌교회 김태민 목사

14' Book Review

소통하는 책읽기·교회 강은수



Contribution

목회를 잘 하려면 경영학을 배워야 한다?

목회를 잘 하려면 신학 이외에 경영학과 행정학 중 어떤 것을 배우는 게 나올까? 대부분의 목회자가 경영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매우 우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렌드를 보면 경영학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경영학적 접목을 통해 성장과 효율을 얻는 측면이 있다.

목회와 경영은 닮은 꼴

경영학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고객'은 '교인'으로, '매출'은 '헌금'으로 대입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고객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하듯이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 광고를 한다.

시설이 훌륭해야 고객을 모시기 유리하기에 교회 건축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듯 대형교회 주변의 작은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전통시장이나 작은 교회의 호소는 크게 고려요인이 아니다. 백화점이 주말에 집중되는 고객을 위해 주변 주차장을 빌리는 것 까지 유사하다.

투자유치를 하듯 건축헌금 광고를 하고,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분식 회계도 한다.

자산 가치를 올리고 후생복지 시설을 확보하듯 시외곽에 기도원 혹은 수양관을 건립하고 부동산을 최대한 확보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건축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인허가가 까다로우면
공무원에게 적당한 접
대와 인맥을 활용하고,
환경적 측면은 사역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 정도에 불과하므로
기도로 돌파한다.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 창업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를 확장 하듯 수도권에 혹은 지방의 적정한 곳에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를 개척한다. 물론 그 주변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제품이나 교회가 아니기에 차별성이 충분하므로 보급 확대에 나선다.

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보다는 수익의 액수를 더 중요시 여기듯, 사회적 평판보다는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최고의 믿음이다.

지각이나 결근과 같은 근태가 나쁜 직원은 기본이 안 돼 있고 불성실하여 승진이나 근무평정이 안 좋듯이, 새벽기도나 수요기도회에 빠지는 교인은 밖에서 뭘 해도 장로나 권사 시키기가 어렵다.

창업주가 피땀으로 이룩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듯, 담임목사가 눈물과 헌신으로 성장시킨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핏줄 이외의 사람이 맡았을 때 창업과 개척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 좋은 기획실 직원들이 세법이나 상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때로는 법 개정까지 로비를 하듯, 교회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새로 만들어도 피해가는 방법을 조언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에



서도 유사하게 되풀이 된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면 언제든 대박을 터뜨리듯, 현재의 대형교회도 모두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키운 것이기에 개인 탓일 뿐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과 경영은 뭐가 다른가?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여 배고픔을 해결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대형교회 중 여럿을 보유하는 명예를 얻었고, 기존 목회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인들의 헌금을 아껴서 더 좋은 곳에 쓰고 있다. 작은 교회 단위에서는 할 수 없던 해외 선교사 파견, 학교 설립, 복지시설 건축 등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능해졌다.

그런데, 기업이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결과가 부정적 지탄으로 이어지듯, 교회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전체의 이슈가 되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대형 마트의 ‘Black Hole’ 현상을 줄이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은 생사를 걸고 진화 중인 반면 교회의 움직임은 다소 둔해 보인다.

행정과 경영은 한글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영어로는 공통적으로 ‘Administration’을 사용한다. 행정은 ‘Public’을 붙이고, 경영은 ‘Business’를 쓰거나 혹은 안 붙이기도 한다. 실제 학문적으로도 조

직이나 인사, 관리 등 그 대상이나 기법의 큰 틀이 유사하다. 행정 현장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경영학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존재한다. 경영이 그 목적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Public Interest)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내 것을 우선하는 사익(Private Interest)과 대응하는 점만은 확실하다.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성경적 가치, 교회의 목적, 목회는 경영과 행정 중 어디에 가까울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힘쓰다 33세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는 교회 개척에 집중하면서 교회 대형화의 목회적 방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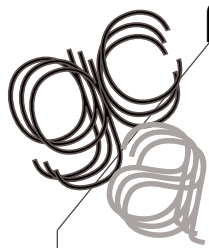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팔복,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등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교회가 더 커지면 헌금도 많아지고 사람도 늘어나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 주변에 존재한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기부도 대기업일수록 절대 액수가 더 많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지켜보는지 잘 고려해 볼 시점이다. 선임 부목사를 행정목사라고는 해도 경영목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하는 방향이, 추구해야 하는 목회의 가치가 공익적인지, 사익이 우선인지 바라볼 때이다.



임성은

박사 | 도시행정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Article



“빠름, 빠름, 빠름”의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최근 100년 동안에 세계 교회와 기독교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유럽/북미의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고,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회가 크게 왕성해졌다.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유럽/북미의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고 그 반면에 유럽/북미의 전통 교회(Institut, 교구 중심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이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9차 총회(2006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국 교회에서도 젊은 층이 전통 제도 교회와 점차 거리를 두는 추세다. 제도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얇은 다음(젊은) 세대의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교회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제도(Institute)로서 존립해오던 기성 교회의 쇠퇴와 관련하여 기독교 연합기관(Council)들도 쇠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독교 협의체들이 직원과 재정 등 여러 방면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한국 교회(개신교)의 연합운동도 이제까지 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연합운동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와 나란히, 포스트 모던시대에 중심과 중앙(기독교의 중심지역, 주류 교회)이 없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고 또 세계의 지역마다 그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부각되며, 이에 맞물린 다원화 상황에서 상대주의(Relativism)를 승인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요청하는 쌍방 소통(Intercommunication)이 강조되고, 문자(말자)문명이 퇴조하면서 시각적(visual)인 영상문화가 부상하고, 이 시대의 디지털 문명(인터넷, 유튜브, UCC 등)은 삶의 모든 면을 다시 구성하고 새로이 조직하게 한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상응하는 교회의 자기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2013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한국, 북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국가 지도자가 교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탱되어 왔는데, 마침내 2012년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인정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회혁신”이 강조되었다. 사회혁신이란 노후한 경제, 실업,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적 소외와 배제 등의 문제에 직면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도 사회 공공부문의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9년 백악관에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이 부서는 사회혁신펀드(1억 400만달러)를 조성했다. 영국은 ‘큰 사회은행’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

업, 자선단체, 자원활동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낙후된 주택환경을 재생하고, 쇠퇴한 공장지역을 대중문화 개발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등 문화와 환경을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보다는 협력(協力)과 상생(相生)의 경제체제가 모색되고 있고, 또 소유보다는 공유(共有)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전망이다. 정치영역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지금 영토분쟁으로 말미암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오이쿠메네)을 위하여 한국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과 교회의 사회 공적 책임전통을 잘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지역사회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밖 이웃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증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교회의 지역이 되고 또 지역의 교회가 되어" (서울 은평구 성암교회) 교회와 지역이 상호간에 쌍방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지역 주민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지역(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면, 때가 되면(카이로스)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루어 질것이다.¹⁾ 또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대할 수도 있다. 교회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마을)의 교회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교회는 관공서나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을 '공유' 하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²⁾

교회론인 코이노니아(교제·연대, fellowship)가 디아코니아(섬김·나눔의 Diakonia)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연대'인 코이노니아와 '교회와 지역의 소통'인 디아코니아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상호 내주(內住)하는 하나의 몸이다. 

주 1)

현재 지역을 섬기면서 그 지역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는데, 서울 성암교회(은평구 녹번동)와 충남 송악교회(아산 송악면)를 예로 들 수 있다. 성암교회는 현재 카페, 어린이도서관, 방과후교실, 노인섬김 등으로 지역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실천하고 있다(교회의 지역주민의 소통이 있는 섬김). 송악교회는 약 10년 이상 하나님의 창조생명을 증언하면서 죽어가는 농촌농토를 살려내고 고령사회가 되어 사람이 사라지는 농촌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선도했다. 그 결과, 유기농 농촌마을이 되어 자연을 창조질서 그대로 잘 보존하고 학교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그러자 귀농인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고 학생들이 이 마을의 학교를 찾아오고 있다. 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교회로서 마을 혁신의 중심에 서었다.

주 2)

예를 들어 지금의 서울시는 물량적 성장보다는 행복을 중시하고 경쟁보다 연대를 중시하는 가운데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공유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유경제)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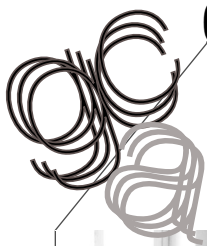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세계 교회 에큐메니컬운동의

임희국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GoodChurch GoodChristian



예수촌교회

| 김태민 목사

보완적 교회론에 대해서 다룬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회 세미나에서 소개되었던 교회이자

한국에 있는 '하나뿐티스트(재세레파)' 교회로 알려진

예수촌교회의 김태민 목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씁니다.

는 의미에서 신약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 원리 가운데 하나로 저희는 복수리더제를 생각했었어요. 리더십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정의 리더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두 가정을 더해서 여섯 가정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일단 리더십을 세울 때는 부부를 함께 가정을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 거지만, 일단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가정이 참여합니다.

저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셨지만, 교회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죠.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목사라고 부르는 순간 아무래도 권위가 그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형제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중에 오시면 저보고 목사님 이러시는데, 주일에 오시면 누가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n분의 1이지, 뭐 제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권위가 없어서 교회를 그만둘까 그렇습니다(하하). 저희 리더십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확대회의라 해서 한 달에 한 번 중간리더 정도 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거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가?' 이렇게 말 씀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와서 얘길 할 수 있고요. 누구의 의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객관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교회 권위 구조가 굉장히 평등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이 없어서 좀 그렇기도 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를 해요.

1. 바른교회아카데미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 개성 있게 사역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인터뷰한 글을 실고 있습니다. 예수촌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촌교회는 어떤 교단운동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평신도운동이 있죠. 기존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한계를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한 3년 정도 계속 모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복리뷰를 많이 했어요. 한 3,40권 정도의 책을 3년 정도 죽 보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라

2. n분의 1의 의사 결정 구조라고 할 때 신천지 같은 이단 몇 가정이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나요?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들어오면 누가 와도 일단 환영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 좋아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이 좀 숨겨지거나 포장돼서 잘 모르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무 장치도 없는데 왜 신천지가 안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그냥 다 노출이 돼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리더십에 올라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공동체에 다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설교를 하려면 일단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눈다든지 그 삶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 분은 설교할 만 하겠다 하는 것이 인정되면, 몇 년이 지나 일 년에 한 번 해보라고 세워 봐요. 한번 세워서 평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엔 안세우고, 괜찮다 인정이 되면 두 번, 세 번. 지금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분기에 두 번 밖에 못해요. 어떤 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두 번, 그 정도죠. 삶을 나누고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숨기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3. 예수촌교회만의 독특성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수 리더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복수리더십이에요. 그 모든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복수리더십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은사중심의 사역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학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큰 상관이 없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은사가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직제에 의한 집사나 장로 같은 직분은 없어요. 그냥 그 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까, 예를 들어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가정폭력센터 컴퓨터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그 분이 컴퓨터를 한 뒤 컴퓨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을 했죠. 그걸 새둥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 했을 때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해서, 그 은사가 어디서든 제대로 발휘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른 설교 하는 분들이 한 7,8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리더십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설교자니까요. 리더십은 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지 설교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7명 정도가 그렇게 하는데 7명이 설교의 비율이 좀 틀려요. 보통 분기별로 순서가 나오는데, 한 번 하시는 분들, 두 번 하시는 분들, 세 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꼭 예배에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끔씩 있어요. 예배라고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예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은 셀 별로 주일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잃어버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저희가 셀, 즉 가정교회가 모인 교회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안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십여 년을, 전체적인 인적 구성을 볼 때 그냥 일반교회와 별반 다름없이 흘러왔던 거예요. 요즘 들어 반성을 하면서 한 3,4년 전부터 계속 교회를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GoodChurch GoodChristian



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러지는 못하시니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서 땅을 좀 가까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뜻이 있는 분들과고 교제를 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교제하면서 점차로 그 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

래서 요번 3월 달에 다섯 가정을 분가 시켰죠. 저희가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해야 더 발휘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한 7,80명 넘어가면서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서로 다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논의하고 준비를 해서 현재의 셀을 완전히 분리시키자, 각 셀을 교회로 분리시켜서 주일날 셀별로 모이고 가끔씩,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겁이 많아서 이리다가 우리 교회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고 일단 한 팀만 내보자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팀만 나갔죠, 다섯 가정이에요. 음번에는, 9월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짜 공동체여야 된다

분은 성찬인 것 같아요. 성찬의 경우, 성찬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나와 떡을 떼는데, 혼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다든지, 평소에 교제가 없었다든지 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서로 떡을 떼서 나누도록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가 말하는 성찬의 핵심은 하나 됨이더라고요. 성찬을 흔히 죄 문제와 관련시키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 됨을 깨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기존의 교회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하는데 곤란을 겪지는 않나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죠. '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 보구나' 하는데,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은 조금... 한 번은 제 친구가 왔다가 뛰쳐나간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뭐하는 거냐고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예배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많아요. 일단 찬양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많고, 어른설교 하기 전에 아이들 설교를 먼저 하는데 끝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하나씩 왜 이렇게 분주하냐고 하는 불평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설교에 대한 토론이 있고 하나씩,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난 할 말도 없는데 왜 자꾸 말시키냐며 짜증내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당연히 목사가 없으니까 축도도 없죠. 축복은 모든 지체들이 다 제사장이나니까 서로서로 축복할 권리가 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마치는 거거든요. 그

래도 다행인 것은 기존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신다는 거죠.

5. 아이들 설교를 할 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듣는 거네요? 아이들은 설교 후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교사들은 예배에 계속 참여가 힘들 텐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예, 어른 설교는 지루하고 막 그런데, 아이들 설교는 짧아서 그게 더 은혜가 돼요(하하). 아이들은 그 후에 올라가서 다른 활동을 합니다. 교사가 함께 올라와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아이들 설교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그걸 맡으면 그분은 계속 그것만 하게 되니까 20여명 정도가 돌아가죠. 저희들은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가 있는데, 새벽기도는 큐티나눔을 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해요. 기도회도 있는데, 기도회도 셀 별로 담당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는 것도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식적인 걸로는 일이 없어요(하하).

6. 어찌 보면 예수촌교회를 돌보는 게 일반 교회와 좀 다를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셀 리더가 교인들을 돌보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데, 저희가 그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셀 리더를 하나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라고 해서 전임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교회 전면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으니까 신학을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가 뭐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7.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교회됨을 추구하시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 사회적인 코이노니아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은사를 지원해주어서 그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그 은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느 한 쪽을 택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회가 그걸 더 장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야 사

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사회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교회가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은사중심의 사역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KAC)도 그 중에 하나죠. 김경중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미 메노나이트하고 저희 교회하고 같이 해서 세운 케이스입니다. KAC는 한국에 아나뱃티스트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평화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사회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메노나이트하고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김경중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협력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메노나이트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8. 교회가 지체들이 가진 은사들을 활용하도록 나름대로 돕고 있는데, 현재 예수촌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의사결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에 모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나요? 거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고, 설교야 뭐 당연한 거고, 초신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왔다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매년마다 사역평가를 해요. 설문지를 써서 설교에 대한 평가도 하고 예배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설교자도 계속해서 변화를 쫓아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좀 쉬어도 될 것 같다고 하고, 아니면 기존에 안하던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 번 기회를

GoodChurch GoodChristian

취보자고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설교자도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줘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편이죠.

9. 예수초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지체 중 한 분이 하고 있는 일을 교회가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예수초교회가 대 사회적으로든지 자체적으로든지 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둥지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돕나,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요. KAC 같은 경우도 행사나 세미나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거기에 다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부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주중에는 저희들 모임도 계속해서 있고, 개별적으로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셀 모임도 있고 해서 한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글로우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국제적인 모임이에요. 한국에서 춘천이 지금 제일 잘 돼는데 거기 멤버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 소속이고요. 자매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금잔디봉사단은 화가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박아센터에 가서 아이들 미술지도도를 해요. 그럴 때면 몇 명이 같이 가서 함께 합니다.

10. '시대구분과 영적 전쟁'이라는 프로그램도 세상을 섬기는 사역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만든 모임인데요. 저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땅에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맞느냐,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라고 한

다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느냐?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와 경제는 항상 맞물려져 있으니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서 교회가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시스템은 항상 관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서도 거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치구조, 경제구조, 사회 문화 구조, 교육문제 등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사회구조를 세워야 한다, 대안사회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갖는 모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셀이나 성경공부시간에 하고요, 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책대화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지금 제일 힘든 세대더라고요. 교회에도 발을 붙이기 힘들고 세상에 발을 붙이기 힘든 그런 세대를 흡수해서 대안사회를 만드는 그런 세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한테 성경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냥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11. 예수초교회의 가치관에는 아나뱃티스트적인 것이 깊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나뱃티스트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아나뱃티스트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죽 하는데, 어느 날 메노나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한국에도 아나뱃티스트 교회가,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거죠.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KAC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자생한 아나뱃티스트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아나뱃티스트라고 어필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례는 침례로 하는데 똑같아요. 주관은 리더들이 해요. 다 물에 뛰어 들어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리더들이 주지만, 거기에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침례 주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너 예수 믿어? 그럼 구원! 회개가 빠져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차원이 훨씬 더 강조가 돼서 삶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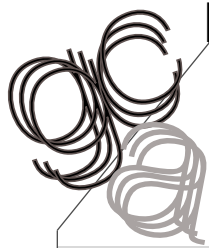
아요. 그 다음에 저는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기존의 멤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수시로 '우리가 정말 가족인가?'를 물어요. 가족이라면 세 가지 원리가 들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상호고백과 나눔의 원리인데, 죄 문제에 관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망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결정의 문제죠. 개개인의 삶이 개개인의 삶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곧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상호 멘토링이죠. 저는 사실 공부를 통해, 설교를 통해 사람이 성장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관계, 상호 멘토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고백하고, 그럼 저 사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단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야 그 사람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 면에서 아직 저희가 너무 약해요.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은 그거죠.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2. 땅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분들과 궁극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사역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인가요?

제가 땅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땅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상적인 생명의 방식,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방식과 그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발현하는 그런 정신에,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야 되고, 그것이 최초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일단 가정교회죠. 한 5-6 가정이 단위가 되는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한 가정에서 많아지면 다른 가정으로 계속해서 분리가 되면서 그 중에서 함께 사는 관계를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농사를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 들어와서 함께 농사짓고 함께 나눠먹고요.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땅을 중심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 안에 비즈니스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다, 고용문제가, 경제문제가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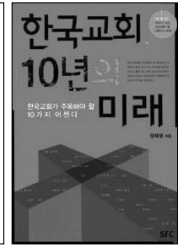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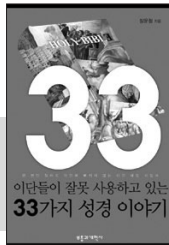
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될 수 있으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 이면서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닌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더 깊고 힘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경제문제하고 자녀교육문제 두 가지가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게 가장 커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경제문제와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할까가 화두이고, 아이들도 거기에 완전히 골몰해 있잖아요.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부터 애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온갖 스펙 쌓기에 골몰하지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예는 거의 신경을 안 쓰죠.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크리스천이면 달라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신앙 속에서 살아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확장시키는 혁명가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다 세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대안사회를 세울 생각은 꿈에도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 아이들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있고, 또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하나의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 몇 가정을 내보내서 거기서 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공동체적 선교, 그 자체가 사회에 큰 메시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꿈이지만요.





Book Review

소통하는 책읽기 / 교회



2010년에 교회와 관련된 책읽기 글을 두 번 연이어서 썼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글을 쓴다는 것은 매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원론적인 교회론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 뭐가 말한다는 것은 이래저래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이미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보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날마다 넘쳐납니다.

SNS를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그런 글들도 넘쳐나고, 여기에 반해 기도와 은혜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반응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 묘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둔감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넘쳐나는 이야기가 뭔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지긋지긋해서 그런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글도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 가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관행'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하게 고착화된 '관행'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관행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관행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전부터 해 오던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관행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관행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부터 관행이 뿌리깊이 박힌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보면 위장전입과 자녀들 군 면제 등 다들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관행이라는 말로 돌려대며 면피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관행도 달라져야 합니다. 관행이란 그 때는 어쩔 수 없었고 괜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회와 문화와 의식이 달라지면 그 때 미처 변하지 않은 관행은 달라진 사람을 옥죄이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오래된 관행이 그 사회의 건강한 상식보다 우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관행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적기 시작하면 아마 제게 할당된 페이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교회에서 임직할 때 임직자들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큰돈을 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직분에 따라 임직 헌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임직은 섬기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인데도, 속내는 결국 으스대는 감투로 여기기 때문에 감투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과 헌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눈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의 관행을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성찰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관행이 오늘날에도 적합한지 성찰의 무대에 올려서 요모조모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번 담임목사이면 영원히 담임목사로 지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담임목사 임기제'라는 좋은 제도가 점차 도입되고 있는 것은 목은 관행을 해체하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처럼, 그 밖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암묵적인 관행 역시 개혁해야 합니다.

관행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관행의 기득권을 가진 소수는 관행의 개혁을 싫어합니다. 관행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행의 개혁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관행을 개혁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신앙과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행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관행을 개혁해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는 책, 네 권을 이번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장운철 지음, 부흥과개혁사)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한 사례를 비판적으로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이단들의 성경 해석 사례를 구약성경에서 10개, 신약성경에서 23개를 골라 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따라 이 책을 읽어보면 이단들의 성경 해석 사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이라는 사례를 보면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이라는 글을 버젓이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해석훈련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고기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읽고 건강하게 해석하는 일은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철저히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으로 『교회 안의 거짓말』(김형국 지음, 포이에마)을 소개합니다. 교회 밖에는 이단의 왜곡된 성경 해석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찢고 있다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호도하는 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거짓말 12개를 잡아내어, 왜 그 말들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말(진리)인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거짓말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라면 몇 번씩은 들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말들입니다. 곤란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애매한 상황에 마치 만능열쇠처럼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거짓말에 대해 묘하게 둔감하고 아주 쉽게 관용적인 그런 사회에 한국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마저 거짓말에 무신경합니다. 우리를 호도하는 거짓말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참말(진리)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참말 위에 신앙이 서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해집니다. 이 책,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책은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백소영 지음, 그린비)

입니다. 이 책은 그린비라는 일반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사이 시리즈’ 중에 4번째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욕망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책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타락한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보수적인 신앙 입장에서 좀 낮설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욕망 사이’를 떠나,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포로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책으로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정재영 지음, SFO)를 소개합니다. 종교사회학자인 저자는 한국교회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진행 중인 10가지 현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좌표와 방향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교회가 더욱 더 공부하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좌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안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개혁할 지 더 잘 보입니다. 한국교회에 보기 드문 이 책, 추천합니다.

“...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개별적인 보편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백소영)



강은수

목사 | 한양대에서 사회학을,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100주년기념교회와 산울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화 및 연구위원회

이사회 이사장 정주채(향상교회), 원장 김동호(높은뜻연합성교회 대표)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장 임희국(장신대), 총무 박경수(장신대)

강성열(호신대), 권연경(송실대), 권영준(경희대), 김근주(기독교연구원-헤미아), 김기현(로고스서원교회), 김동춘(국제신대), 김명웅(장신대), 김세광(서울장신대), 김승호(영남신학대학교), 김원배(예원교회), 김은혜(장신대), 김인옥(실천신대), 김주한(한신대), 김창운(송탄동성교회), 김판임(세종대), 류장현(한신대), 박상진(장신대), 박정수(성결대), 배덕만(복음신대), 배종석(고려대), 배현주(부산장신대), 백종국(경상대), 서원모(장신대), 송병현(백석대), 송인설(서울장신대), 신원하(고신대), 안택윤(서울장신대), 양낙홍(고신대), 유경동(감신대), 윤철원(서울신대), 이국운(한동대), 이승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정숙(햇불트리니티신대), 이형기(장신대), 전성민(웨스트민스터신대), 정일승(복음신대), 정재영(실천신대), 조병하(백석대), 조석민(에스라성경대), 조성돈(실천신대), 조은하(목원대), 최형근(서울신대), 한국일(장신대), 현요한(장신대)

회원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나라교회, 높은뜻광성교회, 높은뜻정의교회, 높은뜻푸른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높은뜻섬기는교회, 높은뜻새아이되어교회, 뉴시티교회, 다사랑교회, 덕생교회, 사랑하는교회, 서울남교회, 세인교회, 시온교회, 안암제일교회, 예원교회, 은진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촌감리교회, 좋은교회, 향상교회, GTL회커뮤니티교회

사무국 | 총무 문형채 간사 김상옥, 조정호

발행인 | 김동호 편집인 | 문형채 편집위원 | 김상옥, 조정호

바른교회아카데미 회원이 되시려면

02.777.1333 사무국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www.goodchurch.re.kr로 접속해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 ☐ 매월 발간되는 **좋은교회**를 발송해드립니다.
- ☐ 회비 납부와 기도 후원, 자원봉사로 바른교회아카데미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각종 행사와 캠페인, 공개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안내

예금주 | 바른교회아카데미
신한은행 100-021-095184



바른교회
아카데미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 Tel 02)777-1333 Fax 02)319-1103

E-mail gcacademy@hanmail.net * 이 저널은 재생지에 인쇄를 한 친환경인쇄물입니다.